



'더로드'



'사일런스'

# 

# "카프카·톨스토이 명작, 스크린으로 함께 즐겨요"

소설영화동아리 '무소영' • '20세기소설영화독본' 프로그램 공개

영화칼럼니스트 조대영이 진행하는 두 개의 소설영화동아리 '무소영'과 '20세기 소설영화독본'이 2018년 하반기 프로그 램을 공개했다. 두 동아리는 원작소설을 먼저 읽고 영화를 감상한 후 소설과 영화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아리다.

'무소영'은 오는 16일부터 12월 17일까 지 격주 월요일 오후 2시 무등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모임이 진행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동서양의 수작들로 이 연출한 영화 '심판'을 만난다.

채워졌다. 아시아작가들로는 일본의 모리 오가이와 다니자키 준이치로, 대만의 칭 산과 아청 그리고 한국의 박영한을 만나 게 된다. 서구의 작가들로는 프란츠 카프 카와 워싱턴 어빙 그리고 그레이엄 그린 과 나다니엘 호손이 기다리고 있다.

무소영의 하반기 첫 시작은 16일 프란 츠 카프카의 '심판'을 앙드레 지드가 희곡 으로 각색한 작품을 읽고, 오손 웰즈감독

30일에는 모리 오가이의 소설 '산쇼대 부'와 미조구치 겐지의 영화 '산쇼대부'를 만난다. 이후 워싱턴 어빙의 소설 '슬리피 할로의 전설'과 이를 영화로 만든 '슬리피 할로우'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증국상 감독의 '안녕 나의 소울메 이트'도 감상한다. 이 영화는 칭산의 '칠 월과 인생'을 원작으로 한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오는 18일부 터 12월 19일까지 격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다.

'20세기소설영화독본'의 프로그램은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하반기 첫 시작은 '톨스토이의 마지막 정거장'(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이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과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조명하고 있는 작품으로, 톨스토 이의 가장 내밀한 면면과 교감했던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노대가의 총체적 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그해, 여름 손님'을 만난다. 안드레 애치먼의 퀴어 로맨스 소 설을 제임스 아이보리가 각색한 작품으로 이탈리아인 피아니스트 소년과 미국인 철 학교수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또 코맥 매카시의 소설 '로드'와 루이스 마일스톤 감독의 영화 '더 로드', 엔도 슈 사쿠의 소설 '침묵'을 영화로 만든 '사일 런스', 리처드 스타크의 '인간사냥'을 각 색한 영화 '포인트 블랭크' 등의 작품을 만

참가비 무소영 1만원, 20세기소설영화 독본 3만원. 문의 무등도서관 062-613-7752, 20세기소설영화독본 010-4660-/전은재 기자 ej6621@

## 다양한 해양 직업의 세계 고교생 '마린스쿨' 운영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 장 이귀영)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 램 '하이틴 마린스쿨'을 오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2시~ 5시) 운영한다.

'하이틴 마린스쿨'은 고등학생들에 게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심어 주고, 해양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미래의 꿈나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중고고학, 미술 사학, 해양역사학, 문화재보존과학, 전 통선박공학, 해양역사학・민속학 분야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만나 각 분야의 학문과 직업세계를 소개한다. 강의와 함께 수중발굴과 문화재 보존 체험, 전 통배 항해 등 현장체험도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을 통 해 신청 후 전자우편(chyuri@korea. kr/hyeonji1931@korea.kr)으로 신 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등학생 1~2 학년 대상 선착순 20명. 문의 061-270 -2049/2047.

/박성천 기자 skypark@

# '6회 수림문학상' 공모 장편소설 20일까지 접수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수림문학상(상 금 5000만원) 공모가 오는 20일 마감

수림문학상은 국내 장편 소설의 새 로운 지평을 열고 재능있는 신진 작가 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수림문 화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신인 및 등단 10년차 미만의 기성작 가의 순수문학 장르의 미발표 장편을 대상으로 한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 고지 800매 이상이다. 당선작 없는 가

작 상금은 2500만원이다. 원고는 수림문학상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03143 서울시 종로 구 율곡로 2길 25 수림문학상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인터넷 접수는 마감일 자정까지,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당선작은 9월 중 수림문학상 홈페이 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하며 11월 중 시상과 단행본 출간이 있을 예정이 다. 자세한 내용은 수림문학상 홈페이 지(www.yonhapnews.co.kr/ munhak)에서 확인 가능. 문의 02-398-3591.

/박성천 기자 skypark

#### 슈만·브람스와 클라라의 삼각관계

#### 17일 '김이곤의 클래식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기획공연 '김이곤 의 11시 클래식산책' 7월의 무대는 '슈 만과 클라라, 브람스의 완전한 사랑'을 주제로 연다. 17일 오전 11시 광주문화 예술회관 소극장.

이번 공연은 슈만과 브람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클라라의 이야기를 담 았다. 슈만과 브람스에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 클라라를 재조명

공연에서는 슈만의 '시인의 사랑' 중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에', '나의 눈 물에서'등을 선보인다. 또 브람스의 가곡 중 수작으로 꼽히는 '나의 여왕님 그대는 얼마나'를 비롯해 '그대의 푸른 눈',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등을 무대 에 올린다. 클라라의 '어두운 꿈속에 서서' '그대는 왜 남에게 물어보려 하 나' 등의 곡도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정가연 바리톤 박흥우

깊이 있는 인문학적 해설과 재치 있 는 입담을 들려주는 콘서트 가이드 김 이곤이 진행을 맡으며 피아니스트 정 가연이 무대에 오른다. 바리톤 박흥우 와 그의 두 아들 박예찬(바리톤), 박성 찬(베이스 바리톤)이 함께 무대에 선 다. 공연 후에는 극장 카페에서 커피와 머핀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전석 1만 원.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 무르익는 열기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가 성황리에 진 행 중이다.

지난 5월에 시작돼 광주 숭일중, 화순 능 주초, 광주예고 등에서 총 5회의 공연을 진 행한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가 시민들 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는 중국의 3대 음악가로 추앙받는 정율성의 음악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모교인 화순 능주초, 광주 숭일중을 비롯 광주 관내 중·고교, 공공기 관 등에 직접 찾아가 공연한다. 아울러 음 악회를 매개로 정율성의 브랜드화, 문화상 품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5회 차 공연은 예술인 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예고 에서 열려 호응을 받았다. 정율성의 가곡 및 작품을 모티브로 한 편곡작품 및 클래 식, 영화음악, 대중가요, 팝페라 등이 펼쳐

오는 25일 수피아여자중, 9월 광신대, 10월 살레시오중 등에서 5회의 공연이 진 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8정율성음악축제' 사업은 이 외에도 광주성악콩쿠르(8월), 중국 취안 저우 방문 공연(9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율성음악축제 홈페이지 (http://jysfestival.kr) 참조. 문의 062 -670-746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인협회 80명 결실 '동행' 발간

'동행' (도서출판 서석·사진)이 발간됐다.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의 창작시만을 토 대로 엮어낸 첫 시집이라 의미가 남다르 다. 작품집 제목을 '동행'이라고 붙인 데서 보듯 시를 쓰는 동인들과 함께 문학의 길 을 걷자는 뜻이 담겨 있다.

시집에는 모두 80명의 시인이 두 작품씩 제출해 모두 160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종, 노창수, 이숙자, 임원식, 전원범, 정광 훈, 한지연, 허갑순 시인 등의 작품이다.

또한 신년 교레회, 임시총회 및 회장 이 취임식, 봄철 조태일 문학관 문학기행, 야 외 시화전 등 시인협회의 다양한 활동과 행사 사진도 담겨 있어 상반기 활동 내역 을 가늠할 수있다.

김석문 광주시인협회장은 발간사에서



락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깨달아 한 편의 시를 지어냄 으로써 가깝게는 자신의 위안을 삼 고 독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한시

"시인은 인간의 삶

에 주어진 희로애

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를 공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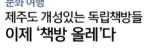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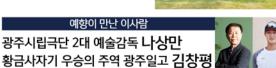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062-220-0550 스: 062-222-0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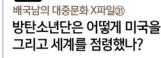




문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⑨ '시인의 마을' 질마재에서 만난 서정주 시인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광주시립미술관 리뷰 2018 민중·인권·평화 <세계 민중 판화>전



### 나남출판·수목원 회장 조상호

예향 초대석

"책 만들고 나무 심는 마음 똑같아요"

삶과 예술의 감회 담아 15년 만에 부부전 '동행' 가진 화가 최영훈·조각가 손연자 부부



노중훈의 꿈의 여행@

\_\_\_\_ 정윤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코미디의 두 대가 버스터 키튼 vs. 찰리 채플린

<del>독특</del>한 컨셉으로 사랑받는 도쿄 모리오카 서점





ACC 시네마토크에서 만난 미디어아티스트 박찬경 영화감독 박찬욱 형제

